

의정소식



안전한 고양시를 위한 현장 방문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과 이흥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은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사태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시설 현장과 덕이동 폐차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돗물 유출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고양정수장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보며 관계자에게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힘써줄 것과 정수시설 점검으로 유출 발생을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오전 발생한 일산서구 덕이동 폐차장 화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의 화재 진압 인력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해 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및 자원봉사 비상지원체계 점검



고양시의회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장기화되고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시민들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자 관내 배수펌프장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을 방문하여 재해 취약시설을 확인하고 유관기관의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집중호우 기간 중 배수펌프장 작동이 원활치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장마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of 가장 큰 원동력은 고양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였다고 하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마스크를 제작하여 배부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또한, 고양시의회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조례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